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주)조선방송(TV조선)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1) 대표자 - 성명 : 오지철 (1949.12.30.) - 주요경력 : 문화관광부 차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2) 편성책임자 - 성명 : 윤석암(1963.04.12.) - 주요경력 : CJ tvN 대표이사 3) 자본금 : 납입자본금 3,100억 원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 성·공익성 실 현가능성 및 시 청자 권익보호 등	4) 주요주주 구성 - 최대주주 : (주)조선일보사 - 주요주주 : Too Capital,LLC, (주)대한항공, (주)부영주택, (주)삼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방송서비스 제공 -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팩트체커제> 운영 및 <공정보도특별위원회>, <공정선거방송 특별위원회>운영 - 공익 캠페인 및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공익성 실현 <심의실> 등 시청자권익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청자 위원회 운영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2) 향후 5년간 계획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의 다양성 추구 - 현장성과 신속성을 살린 뉴스로 보도의 공정성 강화 - 시청자 맞춤형 뉴스포맷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노력 -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공익성 실현 - 다채널 플랫폼을 통한 방송소외계층의 접근성 향상 - 시청자 불만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강화
제3장 방송프로 그램 기획·편 성 및 제작 실 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신개념 뉴스 <뉴스쇼 판>, 생활밀착형 인포테인먼트쇼 <만물상>, <닥터콘서트> 등 시청자 중심의 독창적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콘텐츠의 차별화 <외주제작 시행강령> 준수 및 <외주상생협의체> 운영 등 콘텐츠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함 2) 향후 5년간 계획 <시사현장>, <뉴스고발> 등 심층성, 현장성, 전문성을 살린

구분	주요 내용
	공정한 보도, 공익적 보도 실현 • <신문고>, <비법경매쇼 알토란> 등 유익한 정보와 품격있는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시청자 중심의 방송 강화 • <오냐오냐>, <셰프와 이모> 등 건강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편성 • 프로듀서 책임 및 권한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공정한 저작권 수익배분 및 제작비의 정상화 등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방안 구축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정적 능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설립 이후, 무차입 기조 유지로 재무건전성 실현 • 현금성 자산 보유를 통한 우수한 재무적 융통성 확보 2) 향후 5년간 계획 • 2018년까지 평균 목표 매출액 성장률 21.95%(CAGR 21.95%) •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및 다양한 편성을 통한 흑자 전환 (2018년) 및 안정적인 수익 실현 • 부채비율 20%(2018년) 이하의 튼튼한 재무 안정성 유지
	2. 기술적 능력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 • 광화문 센터(스튜디오, 부조정실 등) 구축 및 운영 •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익성 실현 2) 향후 5년간 계획 • 상암 제작센터(스튜디오, 부조정실 및 부속시설) 구축 검토 • 스마트 서비스 확대(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글로벌화, 장애인 보호 등) • 유지보수 및 시스템 고도화(업그레이드 및 노후 장비 교체)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 이행실적 • 평균 시청률 1% 돌파 등 유료방송시장에 성공적 진입 • 콘텐츠 해외유통 및 공동제작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 • 작고 효율적인 조직 유지 및 해외연수제도 및 직무 역량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향후 5년간 계획

구분	주요 내용
	• 콘텐츠 제작능력 강화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수위(首位)채널로 자리매김(일평균 시청률 2% 목표) • 2017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흑자 전환 예상 • 2018년 매출액 1,659억원, 당기순이익 142억원 달성 • 프로그램 포맷 개발 등 단계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및 성과주의 시스템의 정착 • 연 매출액의 최소 3% 이상 지속적인 교육투자 • TV조선 상시교육훈련시스템(CHOCEES, 코시스) 운영과 인적자원개발 전담조직 구성 • 사회적 기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방송경영체제 지속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 국산 방송장비 적극 활용(전체 투자비 중 26.7%) 및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방송기술 실무에 활용 • SO와 뉴스 공동제작, PP와 프로그램 교류 등 관련 사업자와 상생 협력 • 콘텐츠 투자조합 결성(420억원 규모) 및 방송발전을 위한 출연금(100억원) 납부 완료 2)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유관산업 활성화(UDTV관련 장비투자, HD장비 고도화, 상암제작센터 구축 등) • 방송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방송분야 저변 확대(인턴십 제도 운영, UCC 영상공모전 개최 등) • 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건강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디지털 전환 촉진 공동캠페인 개최 등)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 최초승인시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 사회환원 활동을 통한 사회적 기여 • 콘텐츠의 펀드 운영 및 문화행사 주최를 통한 콘텐츠 투자 •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및 보도를 통한 지역문화 홍보 2) 향후 5년간 계획 •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의제설정 역할 강화 • 국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콘텐츠 투자 •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지역행사의 방송콘텐츠화

□ (주)제이티비씨(JTBC)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명칭: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영문명: JTBC Co. Ltd.) • 납입 자본금 4,220억원 • 대표자 - 홍석현 대표이사(1949년 10월 20일 생) - 김수길 대표이사(1954년 7월 5일 생) • 편성책임자: 김영신 상무(1955년 3월 25일 생) • 주주구성: (유)중앙미디어네트워크 등 126개사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행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1. 방송의 공적책임 • 종합편성채널다운 보도 · 교양 · 오락 프로그램 균형적 편성 • 종합편성채널로서 전 연령대가 모두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편성 - 가족 드라마 편성으로 건전한 가정생활 조성에 기여 <발효가족>, <청담동 살아요>, <해피엔딩>, <무자식 상팔자>, <더 이상은 못 참아> 등 -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 편성 <하나되는 대한민국>, <패티김쇼>, <유자식 상팔자>, <썰전>, <8020 이 어령 학당>, <시대기획 동행>, <고부 스캔들> 등 - <JTBC NEWS9>, <대통령의 자격>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 공약 검증,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공정한 선거방송 실시 • 소수계층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편성 <휴먼다큐>, <동시대큐 2스토리>, <8020 이어령학당>, <힘있는 이야기 쇼>, <쇼킹70억>, <JTBC프라임>, <리얼리티카메라 오감도>, <라이프다큐 스타일> 등 • 유료방송 가입자 100% 송출, 웹(WEB) · 앱(APP) 서비스로 방송서비스 접근의 보편성 및 매체접근권 강화 • 장애인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 완료 및 2013년부터 수화 통역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실시 • 공적책임 수행 전담 기구 통합사회공헌센터 2013년 6월 발족 • 방송 인재 육성 위한 ‘융합미디어아카데미’ 2013년 6월 설립 • 보도 · 시사 · 토론 프로그램 및 어린이 방송에 중간광고 편성 금지 • 방송 프라임타임대 공익광고 편성으로 방송의 공익성 강화 2. 방송의 공정성 구현 • 사실 · 공정 · 균형 · 품위 4대 원칙 준수로 공정방송 실현 노력 • 국내 최초 인사권과 보도 편집권을 갖는 보도담당 사장이 뉴스 진행으로 뉴스의 신뢰도와 공정성 강화 • 뉴스품질지수 개발 및 활용으로 JTBC 뉴스의 품질 제고 • 3단계 팩트 확인 시스템 준수

구 분	주 요 내 용
	• 보수·진보 인사 균형 섭외로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 - 시사토크 프로그램 출연자 234명 중 보수 38%, 진보 33%, 중립 12%, 기타 17% 섭외 • 편파 방송 없었던 JTBC 선거보도, 심의 제재 벌점 최저 - JTBC 1점 < A사 2점 < B사 4점 < C사 14점 • 선거방송 자문단, 정책·공약 검증 전담팀 운영으로 공정한 선거방송 제작 • 선거방송 백서 <2012 선택 우리들의 대통령> 발간 • 팩트체커, 법률 자문단, 의료 자문단 운영으로 프로그램 공정성 확보 노력 • 사외 인사를 포함한 JTBC 공정정보위원회 운영으로 보도 공정성 확보 3. 방송의 공익성 실현 • 방통위의 재난신호 자동 수신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 자막서비스 실시 • JTBC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제작 및 활용으로 방송언어 순화 노력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방송 공익성 실현 - 2011년 12.38%, 2012년 17.24%, 2013년 15.15% - 2014년부터 20% 이상 편성 및 2018년 30%까지 단계적 확대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2013년 5.8% 편성, 2018년까지 7.6%로 단계적 확대 • 소수계층 프로그램 2013년 6.6% 편성, 2018년까지 7.6%로 단계적 확대 •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통위 고시비율 초과 이행, 사업계획 대비 200% 이상 높게 편성 실시 • JTBC 홈페이지 장애인 보조방송 서비스 및 VOD 자막서비스로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 계획 4. 시청자 권익 보호 • 2013년 9월 J Council 구성(15명), 2017년까지 100명 증원으로 시청자 참여 강화 •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위원 선임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시청자의회’를 시청자 시청이 용이한 시간대 편성 • 시민단체의 시청자평가원 패널 참여로 패널 다양성 확보해 여론 다양성 수용 예정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 보도·교양·오락의 균형적 편성 실시로 다양성 지수 종합편성채널 1위 - 2011년: 보도 20.0%, 교양 40.1%, 오락 39.9% - 2012년: 보도 20.2%, 교양 38.2%, 오락 41.6% - 2013년: 보도 13.1%, 교양 42.9%, 오락 43.9%(2013년은 8월 31일까지) • 재방비율 2012년 58.8%로 높지만 2016년 39.9% 2018년 35.0%까지 단계적 축소 예정 • <마녀사냥>, <히든싱어>, <상류사회> 등 시청자 참여형 프로그램 제작 • <탐사코드J>, <뉴스맨> 등 한 걸음 더들어가는 심층탐사 보도 제작 • 평일 22시 예능·교양으로 새로운 시청 패턴을 창조하는 창의 편성 실시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0위에 <썰전> 선정

구 분	주요 내용
	• 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전, 2013 WBC, 2013 동아시아컵 등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대형 스포츠 중계 • 창의성 발현시스템 콜럼버스 플랜 운영 2. 프로그램 수급 • 국내제작 비율 2013년 상반기 98.7%(승인기준 60% 이상) • 외주제작 비율 2013년 상반기 52.6%/ 주시청시간 16.3% (승인기준 전체 35% 이상/ 주시청시간 10%) • 콘텐츠 투자금액 2012년 1,129억원으로 종합편성채널 1위 •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개국 이후 꾸준한 드라마 제작 편성(18개 459편) • 앵커-현장 취재기자-전문가를 동시에 출연시키는 3원 라이브 강화 3. 제작 협력 실적 및 계획 • 외주제작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기여 • 개국 이후 <무자식 상팔자> 등 드라마 총 18개 549편 제작 협력 • <히든싱어>, <마녀사냥> 등 예능 프로그램 총 16개 294편 제작 협력 • <닥터의승부>, <고부스캔들> 등 교양 프로그램 총 60개 858편 제작 협력 • 외주제작비 지급 선진 시스템(선지급, Cost Plus) 도입 및 운영 • 외주제작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 JTBC 콘텐츠 국내 유통 실적 99억원으로 콘텐츠 지상파 독과점 완화 기여 • JTBC 콘텐츠 해외 유통(160억원)으로 글로벌 미디어 회사 기틀 마련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미래를 위해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실시 •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자본금 1위, 4,220억원 • 종합편성채널 중 최대인 460억원 규모의 방송장비 투자 완료 • 종합편성채널 최대 규모인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8개 확보 • 상암동 DMCC 스튜디오 준공('13.3.25) •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한 공개홀 구축으로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
제5장 조직 및 인력운 영 등 경영계획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전문성은 강화, 투명성 확보 • 책임경영 강화형 조직 구조 운영: 4개 총괄 - 2개 실 - 2개 센터 • 보도담당 사장제 도입으로 방송 공정성, 독립성, 내적 책무성 강화 • 1000명 이상 직·간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직접 470명, 간접 680명) • 콘텐츠 유통 전담 법인 설립으로 국내외 콘텐츠 판매 강화 • 매출액 : 2011년 83억원, 2012년 642억원 • 당기순손익: 2011년 -276억원, 2012년 -1,326억원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 방송시설 510종 중 국산장비 162개 구매로 32% 국산화 실시 •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 실행 - UHD, 융합형 플랫폼, 장애인 시청 접근권 강화 기술 연구 노력 • JTBC 컬리지 프로그램(상시 인턴십), 융합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으로 방송 인력 양성 노력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외주제작사 및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구 분	주요 내용
	• JTBC 콘텐츠 유통으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 독과점 완화 기여 • VOD(다시보기), FOD(무료 다시보기) 공급으로 유료방송 활성화 및 시청자 만족도 제고 • 고품질 HD 콘텐츠 100%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여 • 모바일 플랫폼에 JTBC 공급을 통해 융합기술 발전 기여 • 4개 저작권 관련 협회와의 협약 체결로 방송종사자 처우 개선 기여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 문화적 기여 실적 및 계획	•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통합사회공헌센터 설립 및 운영 강화 노력 - 위스타트운동 후원, 위아자 나눔장터,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주최 등 • 골든디스크 시상식, 더뮤지컬어워즈, 백상예술대상 등 문화 행사 주최 • 국가대표 축구경기, 2013 WBC 중계 등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 •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활동 실시 - 총 1,279명 JTBC 견학 • 주철환 대PD의 지역 대학생 및 지역 대상 강연 실시 • 지역 주재기자·지역 SO의 뉴스 제작·리포팅 교육 실시 • 지역 대상 JTBC 단독 문화행사 개최 - <JTBC Special 수원 한여름밤 음악회>, <평택 고덕콘서트>

□ (주)채널에이(채널A)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법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대표자: 김재호, 유재홍 편성책임자: 송미경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가. 공적책임 - 채널A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에 대한 존중’이라는 방송이념과 함께 ‘열린 방송’ ‘따뜻한 방송’ ‘올바른 방송’ ‘착한 방송’이라는 4대 비전을 정하고 방송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뉴스에서는 인사 검증 보도로 2013년 1월 종합편성채널 최초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수많은 특종보도를 통해 언론의 공적인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대한민국 미래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핵심 어젠다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 공정성 - 채널A는 방송의 공정성 준수를 위해 내부에 공정보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보도 교육, 공정보도 에디터 회의 등을 통해 공정성 유지에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방송 준칙을 제정하고 내부에 공정선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채널A는 향후 심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보도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정성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익성 - 채널A는 공익 다큐멘터리와 기획보도를 다수 방영하는 등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및 재난예방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방송언어 순화 지침서를 발간하며 언어 순화에도 힘썼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시청자 권익보호 - 채널A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행복센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모니터단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를 실현해 왔습니다. 장애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수 방영했습니다. - 채널A는 향후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청자의 목소리를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가.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개국 이후 정부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 조사에서 2012년 1월 이후 6분기 연속 종합편성채널(중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식 문화

구 분	주요 내용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등 공익성과 재미를 겸비한 프로그램도 다수 방영했습니다. - 채널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종편 중 최다 수상(3회)했습니다. 총 수상실적도 11건으로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성과 흥미를 두루 갖춘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양 프로그램 편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참신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한편 시청자 참여형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청자와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나. 수급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지상파 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은 외주제작비 비율을 유지하며 외부 창작집단을 육성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하면서도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사를 비롯한 외부 제작주체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선진적이며 건전한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열린&착한 아웃소싱’을 통한 ‘기획 중심의 개방형 방송사 모델’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기존 포맷과는 차별화된 혁신적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 제작 협력 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수급과 외주 제작사 자생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며 제작사와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외주 제작사와 함께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열린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방송 인력을 양성하고 ‘N스크린’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해외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과 콘텐츠 수출 확대를 통해 한류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가. 재정적 능력 - 채널A는 설립 이후 광고, 협찬, 온라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 및 콘텐츠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 양방향 광고, 온라인 방송 등 뉴미디어 분야에서 매출을 확대해 유료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영의 건전성 기초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나. 기술적 능력 - 채널A는 국내 최초로 100% 네트워크 기반 제작시스템(NPS)을 구축하는 등 최첨단

구 분	주요 내용
	기술을 활용한 선진적인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산장비도 대거 활용했습니다. - 채널A는 2014년 상암동에 국내 최고수준의 설비를 갖춘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 UHD 제작환경 구축 등 첨단 방송 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가. 사업추진계획 - 채널A는 2011년 개국 직후부터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유료 방송을 통해 전국 2700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고, 크로스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광고시장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채널A는 앞으로 사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 유료방송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 조직 및 인력 운영 - 채널A는 대규모 경력·신입 공채와 전문인력 특채, 내부인력 공모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했습니다. 채널A는 앞으로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내부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 채널A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력 및 기술·시스템 운용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내부 미디어 기술연구소를 활용해 다양한 외부 주체들과 연구개발(R&D)을 진행하며 국내 방송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영화 <설국열차>, <미스터리>, 한류 아이돌 해외콘서트,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 등에 투자해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한류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 채널A는 시민기자인 스마트리포터, 언론사 최초 신문·방송 융합형 인터넷도를 운영하며 방송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채널A는 방송사의 사회책임(CSR)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 공익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학술 세미나 등 공익행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함께 전국 20곳에 청년드림센터를 운영하며 청년 구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문화 보전, 생활체육 진흥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수 편성해 왔으며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 등을 활용한 지역 밀착 콘텐츠를 제작해 방영하고 있습니다. - 채널A는 앞으로도 공익 프로그램 강화,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연합뉴스티브이(뉴스Y)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명칭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채널명 : 뉴스Y) ○ 대표자 : 송현승/ 편성책임자 : 이래운 ○ 주주 : (주)연합뉴스 28%, 을지학원 9.9%, (주)화성개발 8.3%, (주)예술저축은행 7.4%(5%이상 주요주주 합 53.6%, 기타주주 46.4%)
제2장. 방송의 공적 책임 · 공정성 · 공익성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 뉴스Y는 개국 이후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방송심의 제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미디어미래연구소의 2012년 12월 제6회 미디어 어워드에서 <공정한 미디어>부문에서 8대 미디어로 선정 ○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 행사, 기념식, 선거방송, 공익광고·캠페인 등 공익적 프로그램 지속 편성 ○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현장 라이브 중계 확대, 편향 없는 객관적 심층보도를 통한 공정한 뉴스제작 ○ 연합뉴스의 전국 13개 각 지역취재본부에서 취재·제작하는 지역특화 뉴스 ‘지방시대’ 매일 제작·편성(주5회). 남북 분단의 현실을 조망하고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북한 전문 뉴스 ‘북한은 오늘’ 매일 2회 제작·편성 ○ 외국인을 위한 영어 전문 뉴스 ‘English Y’, 국제뉴스 ‘글로벌 Y’, ‘월드클립’ 등 글로벌 프로그램 편성. 국내 다문화 가정을 다룬 ‘무지개Y’, 휴먼다큐 ‘사람들’, 연중기획 다문화 공동프로젝트 ‘하모니’ 등 편성 ○ 뉴스Y는 개국과 동시에 방송사 최대 규모인 총 13대의 ‘TVU 백팩’을 도입해 영상 뉴스 속보 강화, 생중계 등 영상뉴스 발전에 기여 ○ 각종 재해·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방송 비상편성 체제 항시 유지하고 있으며 방송사 최초로 ‘기상예보사(자체 예보 생산 가능)’ 도입 ○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시청권을 위한 장애인 자막방송, 수화통역방송 시행. 특히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포함 PP사 중 최초로 수화통역사 비율 확대시행 ○ 국내 유일하게 전 세계 1위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유스트림’에 실시간 방송 서비스 론칭. 약 120여 개국 전 세계 인구가 시청 중. ○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에 의거 시청자위원장과 내부인사인 보도국장 등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운영 ○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뉴스Y 심의규정을 준수해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강화 ○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을 구성해 운영 중이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옴부즈맨Y’를 편성해 시청자 참여를 늘리는 등 시청자 주권을 확대시킴 ○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구현에 기여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 제작. 해외 뉴스채널, 해외동포 채널 등과 콘텐츠 교류 및 확대할 예정 ○ 방송의 공적 책임과 보편성을 위한 공익적 보도 프로그램 지속 편성, 제작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수 계층 시청권 보장, 장애인 시청권 보장

구 분	주요 내용
	확대, 사회적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 ○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 공정성 강화, 편성규약에 의거 편성위원회 매월 1회 지속적으로 운영, 시청자위원회 매월 1회 회의 개최 ○ 시청자 모니터링단, 대학 방송국과의 협약을 통해 대학생 기자단 운영 예정 ○ 자동자막송출시스템 재난방송 실시, 재난방송 사전예방 프로그램 편성 확대
제3장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 실적 및 계획	○ 뉴스Y는 신뢰받는 방송, 차별화된 방송,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 글로벌뉴스채널을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지향 ○ 프로그램 편성 시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을 위해 방통위에서 고시하는 편성비율 준수. 하루 평균 20시간 뉴스 편성으로 보도전문 채널다운 편성 구현. 뉴스는 평균 89.4%, 시사·교양은 평균 10.6% 편성 ○ 뉴스 외 부편성 프로그램 중 35%를 외주 제작하고 있으며 부편성 프로그램 중 55%를 국내외 우수프로그램을 구매·편성하고 있음 ○ 해외 특파원 현지 밀착형 ‘글로벌뉴스’, 남북 분단의 현실을 조망하고 통일방안을 모색하는 ‘북한뉴스’, 지역취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방뉴스’, 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시청자의 주권보장을 위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한 공익성 프로그램 등 주로 편성 ○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과 보도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운영 ○ 외주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송용역 제작비 및 외주제작에 관한 규정’ 제정하고 외주제작사 선정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체 구매심의위원회를 가동 ○ 국내 방송사 외에도 미주 한인방송에 뉴스Y 보도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 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충족 ○ 국내외 우수 다큐멘터리 구매를 통한 시사교양 비율 점진적 확대 예정 ○ 정보성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 확대를 통한 정보 프로그램 강화 ○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심층 대담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 ○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외주제작사 선정 유지 ○ 연합뉴스 해외취재망을 통해 AP·로이터·블룸버그 등 대상으로 한국 관련 영상뉴스를 유통시킬 예정. 또 콘텐츠 확보해 제작물에 적극 활용할 계획
제4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스튜디오 등 제작시설 870m²규모, 주조정실 등 송출시설 124m²의 규모. 건물 2층의 2스튜디오는 면적 157m²의 규모이며 VR을 활용한 가상스튜디오, 5층 보도국내에 위치한 5스튜디오는 115m²규모의 오픈스튜디오임 ○ '11년 전체 236억4천만원 투자 중 국산 장비 비율은 49억4천만원으로

구 분	주요 내용
	약 20.9%의 국산화 비율을 계획함. '11년 방송시설에 약 197억을 투자. 이중 국산 장비 비율은 19.8%로 계획 거의 달성 ○ 올 10월 이전하는 신사옥은 방송시설 설치를 위한 조건들을 건물 설계 단계부터 고려, 방송환경에 최적화 한 건물. 상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 경로 확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접지 설계, 내진 설계 적용 ○ '14년부터 '18년까지 약 85억을 방송시설에 투자할 예정. 장비 및 시스템 도입 시 우수한 국산장비와 국산솔루션을 우선 선택할 예정. 개국초기와 같이 약 20%수준의 국산장비 비율을 계속 유지할 계획 ○ 방송기술 및 편집기술 인력은 해당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경력자 확보. 방송시설 운용인력 또한 관련 업무 경력자로 확보 ○ 뉴스Y는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을 위해 트리맵 솔루션, 기상방송 송출 솔루션, 자막 및 그래픽 송출 솔루션을 개발. 향후 멀티터치 모니터개발, 실시간 그래픽 수화번역 시스템, 스마트 미디어 기술, VR/AR 시스템 외부 데이터 연동 시스템 등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총 16억을 투자할 예정 ○ 뉴스Y는 초기사업자로서 조달자금보다 소요자금이 커 현재 적자수익 구조(2012년 기준 매출액 29,602백만원, 당기순이익 -17,045백만원)임. 그러나 2016년부터 사업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흑자구조 전환을 계획함
제5장.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 모든 플랫폼(SO, IPTV 등) 등과 송출 계약 완료하였고 구체적 교류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 브랜드 강화를 위한 채널 번호 23번 전략 실행 ○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알-자지라와 영상교류 협약 체결. 또 러시아 투데이, KBF-D-TV, TVBS 등과 교류협력 MOU 체결 ○ 연합뉴스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AP·로이터·블룸버그 등에 한국 관련 영상뉴스의 글로벌 유통. 연합뉴스 특파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확보 및 제공 ○ 인력 운용 효율성, 보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합 뉴스와 협업을 통해 텍스트 뉴스와 영상뉴스의 유기적 결합 추진 ○ 뉴스Y 조직은 433명으로 보도, 제작, 기술, 경영 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60% 이상이 콘텐츠 제작 중심인력 ○ 뉴스Y는 '13년 8월말까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초과하여 인력을 고용. '13년 8월 31일기준 총 433명으로 당초 사업계획 224명 대비 193% 초과 달성 ○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현재 뉴스Y는 파견직 사원 중 성과 우수자에 한해 매년 일정 인원내 대하여 정규직 전환 ○ 인사평가를 통한 성과주의 실시, 국내외 전문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 하고, 포상을 통해 격려 및 동기를 부여해 지속적인 회사의 발전을 도모. ○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뒤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외부감사인을 통해 2013년 중간감사를 진행

구 분	주요 내용
제6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실적 및 계획	○ ‘15년까지는 사업초기로 조달자금보다 소요자금이 많지만, ‘16년부터는 사업안정기에 접어들어 조달자금이 소요자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 ○ 산학협력을 통해 방송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연2회 인턴십 실시. ○ 방송국 견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방송관련자 및 학생 등에게 2012년 약 40여명, 2013년 약 100여명 견학 및 현장체험 기회 제공 ○ 방송발전을 위한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언론학회·방송학회 학술대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행사 등 각종 방송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후원. ○ 뉴스Y는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을 위해 트리맵솔루션, 기상방송 송출 솔루션, 자막 및 그래픽 송출 솔루션을 개발 ○ 서울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KTX, 공항철도 등에 뉴스Y를 방영 중. 정부기관, 공항·역사 등 연합뉴스 멀티미디어 단말기(DID)에 영상 뉴스 제공 ○ 멀티터치 모니터개발, 실시간 그래픽 수화번역 시스템, 연합뉴스 미디어랩과 공동연구, 영상 아카이브, VR/AR 시스템 외부 데이터 연동 시스템, 장애인 자막 송출 시스템, 스마트 미디어 기술 등 향후 5년간 약 16억원 투자 예정 ○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 유치에 효과적인 HD급 화질의 실시간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협력. Tving 및 에브리온TV 등에 콘텐츠를 제공해 SO의 수익 실현에 기여. 티브로드, 적십자사와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공동제작, 편성 ○ KT·SK 등 IPTV 3사에 N스크린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상파DMB 플랫폼인 한국DMB(주)와 위성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뉴스Y 송출. 국회방송, 국군방송, KTV와 콘텐츠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교류 ○ 미주 한인방송 대상(BONG TV, Y-TV, KEMS-TV, MK-TV 등)에 뉴스Y 보도영상 공급을 통해 한인방송 지원 및 해외 동포에 대한 정보 욕구 충족 ○ 방송인력 양성을 위해 인턴십 기회와 산학협력 기회 제공의 확대하고 직원 교육훈련비 투자와 직원 교육시간을 증대
제7장.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 전국 17개 케이블TV 단일 SO와 방송교류업무 협약 체결해 선거방송 영상, 태풍 등 재난재해 영상 방송영상을 교류 ○ 티브로드,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편성해 지역방송에서 방영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나눔행사 실시 ○ ‘디지털케이블TV 쇼(KCTA)’ 행사 주요 협찬사로 참가(‘12년, ‘13년) ○ 2012년 12월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 초청 음악회 개최 ○ 2013년 6월 다문화, 북한이탈청소년 지원단체인 (사)사랑정원 후원 ○ 연합뉴스,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와 공동으로 2013.2.5 ‘동북아 미래를 본다’ 동북아심포지엄 개최. 사회적 화합을 위해 전국다문화가정배드민턴 대회를 개최 ○ 문화보전 및 발전을 위한 내용을 심층 보도하고, 문화계 관련 프로그램 ‘컬쳐Y’, ‘만화를 말하다’, ‘여행과 풍경’, ‘아웃도어 내비게이션’ 등 편성. ○ 사회공헌단체와의 MOU를 통한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청소년 등 지원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 매년 ‘뉴스Y경제포럼’ 개최를 통해 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예정 ○ ‘지방시대’ 등 지역발전 기여 프로그램 제작·편성 계획 ○ 정규직 전환, 인턴십, 외주제작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